

‘정직하게 돈 벌어 올바르게 쓴다’는 창업 정신 이어갈 터

▣ (주)삼양사 강신우 사료BU장



“우리 삼양사는 올해로 창립 87년을 맞는 농업자본으로 설립한 국내 최장수 기업중의 한곳입니다. 1924년 일본인 기업들의 착취가 심할 때, 체계적인 농토관리를 위해 삼수사(삼양사 전신)를 설립하였고 영농 근대화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衣·食 해결을 위하여 농업자본을 산업화하면서 제당·수산 사업에 진출하여 국민 건강 및 생활 향상과 더불어 식품사업 발전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생산하여 외화절약과 직

접 어획한 수산물 가공은 전량 수출함으로써 귀한 외화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폴리에스테르(화학섬유)공장을 건립 국내 의류 제조 발전 등에 기여한 것을 보면 ‘산업보국’이라는 경영철학을 확고하게 실천하는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삼양사 사료사업은 수산물 가공을 통해 남은 부산물을 이용하면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으로 1976년 목포에서 배합사료공장을 설립한 후 35년 동안 축산농가와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보국 차원도 있겠지만, 첫째는 1930년 초 영농근대화 추진 시 농촌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던 기업 이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사료의 주·부 원료인 소맥분, 소맥피, 구르텐피드, 구르텐, 당밀, 옥배아박 등을 그룹사에서 직접 생

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신뢰감일 것입니다.”

이는 (주)삼양사 강신우 사료BU장은 물론 최고 경영진들이 설립 당시부터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켜오고 있는 경영철학이다.

강신우 사료BU장은 1975년 삼양사에 입사하여 그룹내의 요직을 두루거치며 지난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료사업을 맡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사료BU장에 취임하면서 지금은 동종업계에서 선두대열에 오르는 사업능력을 보였다.

경남 의령이 고향인 강신우 사료BU장(62세)은 동아대학교 법경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Stanford대 AMP졸업을 했다.

Q.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구제역이 지금은 다소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역 종식 이후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 해주시지요.

A.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인, 축산산업 관련자, 공무원, 군인들까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엄동설한에 불철주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참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동안 오일쇼크, 금융위기 등 어려운 고난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 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산질병의 위기를 잘 못 대응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욱 악화 될 수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극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 한다면 정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고리를 끈기 위해서는



▲ 설강맥우MOU체결식

케이스 별 과학적인 예방 매뉴얼을 구축하여 정기 점검을 통하여 위반자는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왕좌왕하는, 뒤 쫓아가는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축산 전염병은 축산 관련 산업의 큰 축을 변화 시킬 것 입니다. 막연하고 형식적인 계획보다 자신의 역량에 맞는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슬기롭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Q. 전환기의 축산 및 사료산업이 나아갈 길은?

A. 몇 년 전에는 FTA, 환경문제 등으로 축산 사업을 시장 규모 감소, 채산성 저하 등의 아주 어두운 전망을 했었으나, 지금은 2006년 대비 10.2% 신장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축산 경쟁력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非 가격 경쟁력 향상, 축산물의 안전화 및 고급화,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슬기롭게 흡수할 수 있어야 할



▲ 친환경축산 교류협약(MOU체결)

것입니다.

치솟는 비용 구조에 대응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노력들은 정부, 농가, 사료회사, 축산물 유통회사 등이 가공유통 차원에서 과잉되어 있는 비용 항목들을 솔선수범하여 혁신하지 않으면 시장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상대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Q. 취임 이래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은?

A. 업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업적보다 우리 구성원들의 땀과 혼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내에서 가장 부가가치 낮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합심된 노력으로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 모든 업무의 중심점은 고객에게 있다는 Mind 조성

2. CRM을 통한 고객 소통의 IT화
3. 홈페이지와 Portal을 통한 정보 공유
4. 축종별 Brand 활성화(개발)
5. 내부 Cost, 업무효율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기법인 Action Learning/6시그마 도입 운영
6. 벨기에 SGS사 및 수의과학원 HACCP 인증

7. 옥수수 압력Cooker 설치로 Flake 사료 대변신 등

이러한 활동들이 고객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Q. BU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새해 소망은?

A. 중점 추진 전략은 Think Place 활성화를 통하여 Communication문화를 정착, 구성원들의 분산된 힘을 집중시켜 고객이 필요한 것을 찾아 즉시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에 완성하고 싶습니다. Promotion에 필요한 APP을 개발하여 IT를 통한 업무 효율화도 추진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건상 마음에만 그쳤던 사진 관련 기술을 공부하여 주말을 이용해 야외 활동을 해 볼까 합니다.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묘미와 사물을 그대로 전달 해주어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Q. BU장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은?

A.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자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선생님 역할을 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 했습니다. 삼양사 입사 이후 영업·마케팅·기획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 반복되는 일 보다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성과를 추구하는 외향적 성향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평소 Speed(무조건 빠르다는 의미는 아님)를 강조 하다 보니 구성원들이 많은 고생을 합니다. 요즘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老子의 섬김 정신을 집중 공부하고 싶습니다.



▲ 고객 자녀 캠프후 기념촬영

Q. BU장님의 좌우명 및 생활신조는?

A.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간서적들을 접하고 있지만 머리에 많이 저장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과 충돌 할 때는 입력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Early Adapter”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좌우명으로 “日日新又日新”을 좋아 합니다. 현재 최고, 최대, 위대함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지속성 있는 발전을 훨씬 좋아합니다.

Q. 앞으로 (주)삼양사 사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은?

A. 먹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축산물인 인류가 존재하는 한 없어서는 안될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폐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진정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과 Partnership을 형성 할 때 동반 상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본에 충실 해야 겠다(Back to The Basics).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료는 거짓말 않는 가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기본 룰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내 농장에 사용 한다는 장인정신으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독려 할 것입니다.

셋째는 조직의 잠재역량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 낼 것인가? 어려운 과제이지만 바위로 계란을 치듯이 형세와 기세를 만들어 긍정적인 자세를 만들 것입니다.

넷째는 지역 및 고객세분화를 통한 집중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본업인 배합사료 생산, 공급에만 집중 할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아, 고객의 사업이 풍요롭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先進 사료업체와 비교하면 아직 높은 비용 부문이 많습니다.

원료 공급, 제조, 고객까지 눈 높이를 낮추어야 할 비용이 많지요. 이를 우직지계(迂直之計)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정직한 사료를 만드는 것이 축산 농가들에 대한 Partner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Q. 축산진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주)삼양사의 종합적인 개요.

A. 창업 정신처럼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올바르게 쓴다’를 실천하기 위해 1961년 양영희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학자금 보조, 연구비 보조, 학술연구, 사회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68년 수당장학회를 설립하여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인재 육성을 기업인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글·사진 권영길 차장)